

PED 질병 피해 극복 사례

여 름철을 지나면서 PED의 발생도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PED는 수년전부터 국내 양돈장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질병이며, 지금도 그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기온이 낮아지는 계절로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PED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다.

본 글에서는 그동안 많이 언급되었던 급성 PED 보다는 상재화 되어 연중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장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좀더 현장감 있는 PED 피해 극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PED의 주요 발병 요인

PED 발생의 일반적인 요인으로는 바이러스의 활력이 높아지는 시기에 바이러스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경우와 농장 내부적으로도 돈군의 건강상태를 높여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본다.

- 백신접종이 부실한 농장
- 외부 구입돈에 의해 발병(특히 임신돈 및 자돈 구입을 빈번히 하는 농장에서 발병위험이 높다.)
- 출하차량 및 돈분수거차량에 의한 전파
- 야간출하시(평상시 관리가 양호한 농장에서도 의외로 이 원인으로 인해 발병하는 경우가 있다.)
- 인근 농장 발병(농장주 및 관리인의 잦은 왕래)



이 재 춘 원장
한별 피그 클리닉

- 조류, 고양이, 개와 같은 동물들에 의한 전파
- 기본적인 방역관리, 환경 관리 및 사양관리가 부실한 농장

2. PED 발생시 일반적인 처치 사례

PED가 발생한 농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 PED 백신접종
- 인공감염
- 분만사 방역강화 및 울인 울아웃(감염고리 차단)
- 분만사 온도 25도 유지
- 전 돈사 소독 강화
- 모돈 및 자돈에 면역증강제 투약
- 자돈 탈수교정을 위해 복강 주사

이러한 조치사항들은 대개 최초 발생시점에서 선택하게 되는 것들인데, 초기에 적절



▲ 설사와 구토 증상을 나타내며, 추위를 느껴 한쪽에 모여 있는 자돈

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문제는 PED가 상재화 되어 상기조치를 취해도 지속적으로 발병하는 농장의 경우라 할 수 있다.

3. PED가 상재화된 농장의 상황

PED로 연중 고생을 하는 농장들이 주변에 많았고, 앞으로도 또 많은 농장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상재화되어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농장의 경우, 그 피해 정도는 포유자돈의 폐사손실 뿐만 아니라 모돈의 번식흐름이 깨짐으로 인한 번식성적 저하까지 실로 농장을 들쭉서 놓은 것 같은 참담한 상황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농장들을 방문하여 그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점검해 보면 사실 위에서 언급했던 백신접종, 인공감염, 분만사 위생관리 강화 등... 안해본 조치가 없다고 하며, 심지어 임신 말기돈 약 1개월간의 분만예정복에 인공 유산을 시켜 분만사 자돈에 감염고리를 끊으려 했던 농장도 있고, 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소문에는 아예 임신돈을

부분적으로 정리하기도 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PED가 얼마나 고질적으로 근절이 안되었으면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겠는가 하는 생각에 농장주의 심정이 다소 이해가는 부분도 있지만 냉정하게 농장을 바라볼 때는 이래서는 결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분명 현장에서의 대처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결코 PED 그 자체가 근절이 안되는 고질병은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평소 지론이기 때문이다.

4. PED가 상재화된 경우 새로운 접근 시도

공교롭게도 필자는 포유자돈 설사가 상재화되어 1년 이상 피해를 입고 있는 농장을 방문할 기회가 많다. 사실 발병 초기에 방문 요청을 하여 컨트롤을 한다면 보다 빨리, 피해도 최소화 하면서 종식시킬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이유는 발병 초기에는 보통 농장에서 나름대로 자가 처치를 하고자 하며 이러한 처치가 뜻대로 되지 않아 장기간 그러한 양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외부 요청을 늦게 하는 것 같다.

PED가 상재화된 농장들을 돌아보고 제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인공감염이다. 그리고 모돈의 백신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전체 모돈의 영양 밸런스를 맞춰 주며, 모돈의 바디컨디션 관리에 주력하면서 무유증, 또는 저유증 모돈을 최소화 한다. 노산돈 및 문제모돈의 조기 도태를 실시한다. 기타 일반 소독, 위생관리 및 자돈 치료 등은 평상시 하던 방식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어찌되었건 그러한 농장들을 방문해서 현장 상황을 돌아보면 사실 처음에는 무척 난감한 심정을 느끼게 된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백신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백신을 벌써 수개월 전, 또는 1년 전부터 써왔다고 하고... 그래도 분만을 했다 하면 자돈은 설사를 하게 되니까 재차 인공감염도 여러 차례 했다고 하고... 심지어 임신 말기돈을 부분적으로 인공유산시켜 분만사를 약 2주 이상 비우기까지 했는데도 증상의 차이만 있을 뿐 자돈의 설사로 인한 피해는 지속된다는 것이다. 현장을 보면 분만사, 임신사는 소독을 과하다 할 정도로 하고 있으며, 분만 직후까지도 분만틀을 보면 깨끗하고 아주 뽕뽕송송하여 설사로 이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되지 않을 상황인데도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설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데 여기서 과연 어떻게 설사의 피해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종식을 시킬 수 있겠는가? 정말 방법은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필자의 답은 "종식시킬 수 있다"이다. 그동안 필자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해결했던 농장들의 예를 보면서 자돈 설사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시도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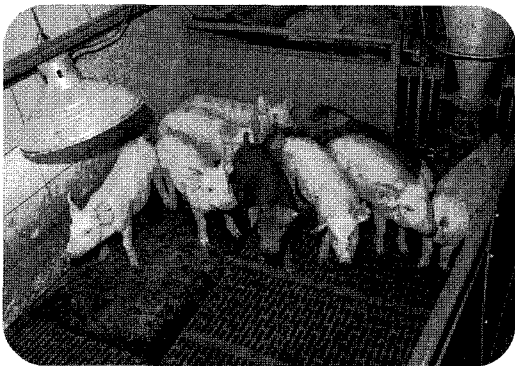
5. PED 컨트롤 사례

지금 이야기하려는 농장의 상황은 앞서 언급한 대로 PED가 상재화 되어 연중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좋다는 여러 가지 관리방법 및 백신, 약제, 소독, 인공감염 등의 적용이 모두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 농장의 경우이다.

필자는 이러한 농장들을 방문해서 현장을 돌아보고 제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인공감염이다. 그동안 수차례 인공감염을 실시했고 백신접종도 꾸준히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농장주가 극구 반대하더라도 최대한 설득시켜서 우선 전체 모돈에 인공감염을 실시한다. 이 때 재료가 될 자돈 선별부터 인공감염 재료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모돈에게 먹이는 과정까지 직접 필자가 다 맡아서 한다.(인공감염에 대한 상세한 방법은 본지 2003년 3월호에 필자의 원고가 있으므로 참고 바람)

두 번째로는 모돈의 백신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농장들 대부분이 임신말기에 백신접종이 다소 과다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모돈에게 면역력을 높여주기 보다는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혼합백신으로 두 가지 기본 백신만 접종하고 나머지는 추후 농장이 안정되



● 상재화된 농장의 종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가”가 아니라 “왜 상재화가 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면 그 때 상황에 따라 조정을 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PED 백신도 접종 의미가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세 번째로 전체 모돈의 영양 밸런스를 맞춰 주고, 체력 회복을 위해 영양제를 약 1개월간 지속 투약한다.(이 때 상황에 따라 항생제 크리닝도 병행할 수 있다)

네 번째로 모돈의 바디컨디

션 관리에 주력 하면서 무유증, 또는 저유증 모돈을 최소화 한다. 사실 이 네 번째 관리 사항이 PED 근절에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는 관리인 만큼 철저하게 집중적으로 개선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는 노산돈 및 문제 모돈의 조기 도태를 실시한다.

기타 일반 소독, 위생관리 및 자돈 치료 등은 방법상 큰 문제가 없다면 농장에서 평상시 하던 방식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관리들이 꾸준히 이루어질 경우 거의 1년~2년간 고질적으로 문제되던 농장들도 점차 개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농장 상황에 따라 종식기간에는 차이가 있는

데, 빠른 경우는 2주 정도이고 늦어도 보통 3개월 이내에는 종식이 된다.(종식까지 3개월이 소요된다는 농장의 경우는 보통 처치 후 2주 정도 지나면 설사 발병양상이 약해지고 산발적으로만 발생하면서 점차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3개월 정도면 완전히 종식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소개한 내용을 보신 분들 중에는 별로 특별한 처방이나 노하우가 없다고 실망하는 분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필자는 앞에서 소개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문제되는 현장상황과 매치시켜 보면서 상재화된 농장의 경우 무엇이 관리의 우선 순위이고, 또한 어떤 관리가 소홀해져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재차 느낀다.

상재화된 농장의 종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가”가 아니라 “왜 상재화가 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양돈**

돈열 박멸 없이 양돈산업 미래 없다.